

## 일간투데이

 인쇄하기

 할말기

홈 > 뉴스 > 사회·전국 > 수도권

## 여주, 닭 사체 폐기물 불법매립 말썽

'닭 사체 총주에 보냈다' 거짓말... 초동대응 미흡 비난

2013년 06월 09일 (일)

배석환 기자 ✉ dtoday24@dtoday.co.kr



[여주=일간투데이 배석환 기자] 여주군에서 닭 수 천 마리가 먹이를 주지 않아 굶어 죽는 일이 발생해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주군청이 죽은 닭 사체 폐기물을 매립해 말썽이 일고 있다.

지난달 23일 여주군 흥천면 닭 사육 농가에서 닭 2만 수를 키우는 임차인이 경영난으로 어렵게 되자 농장을 그대로 방치하고 도주하는 바람에 양계장에 있던 닭 수 천 마리가 먹이를 먹지 못해 굶어 죽는 사태가 발생했다.

또 그동안 가축분뇨를 처리하지 않고 방치해 가축 분뇨장은 분뇨로 넘쳐나고 악취가 심했다.

여주군 축산과장은 폐사한 닭에 대해 “총주에 있는 동물 사체로 사료를 제조하는 공장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보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총주시와 충북도청에 확인결과 그런 공장이 없다고 관계 공무원은 말했다.

이러한 사실을 지난 4일 방역계장에게 확인결과 농장입구에 농장 주인이 매몰했다고 말했으나 담당

과장은 거짓말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매립했다는 현장에는 여주군 직원들이 일회용위생복을 입고 작업한 흔적을 볼 수 있었다.

한편, 경기도청 방역과장은 “몇 년 전 구제역으로 환경오염이 우려됐기 때문에 현재는 가축이 죽을 경우, 매몰하지 않는 방향으로 처리하며 불가피하게 매몰이 결정될 경우는 비닐을 바닥에 깔고 침출수가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하고, 소각이나 매립지에 매립을 권장하고 있다. 이동하기 곤란할 때 렌더링(고압소독 및 스팀소각)등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주군청은 가축의 사체인 폐기물을 안전장치 하나도 갖추지 않은 채 땅속에 매립해 토양오염과 환경오염이 우려될 뿐만이 아니라 군청에 초동대처이 미흡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일간투데이(<http://www.d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인쇄하기  창닫기